

리비아의 石油産業 동향

1. 머리말

리비아경제는 石油부문이 GDP의 약 50% 및 재정수입의 70%정도(1982~86년 평균)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石油수출이 이 나라 총 수출의 99.9%를 차지하고 있어 石油收入의 증감에 전적으로 경제가 좌우되는 石油一邊倒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80년 들어서 선진공업국의 石油수요감퇴에 따른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세계시장점유율 감소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그동안 高油價정책을 고수해 온 리비아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파악하고 1980년 말 公式油價를 오히려 배럴당 4달러씩 인상하였다. 그러나 石油의 확보가 이전보다 용이해진 선진국들은 리비아産 原油의 매매량을 축소시킴으로써 리비아의 石油생산 및 수출량이 1981년부터 크게 감소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아울러 油價의 계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리비아의 石油수출수입은 격감세를 나타내었다. 리비아의 石油생산은 1980년 1.8백만 b/d에 달했던 것이 1985년에는 1.0백만 b/d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石油수출수입은 147억달러에서 103억달러로 축소된 데 이어 1986년에는 國際油價의 폭락으로 57억달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石油수출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리비아경제는 큰 위축을 면치 못하였는바, 1981~84년중 연평균 경제

성장율은 마이너스 6.9%로 나타났고, 1985~86년에도 油價의 폭락으로 負의 경제성장이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재정 및 국제수지면에서도 만성적인 적자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 운용에 힘입어 국제수지적지폭은 최근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하 本稿에서는 리비아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石油부문을 중심으로 최근의 同國경제 변동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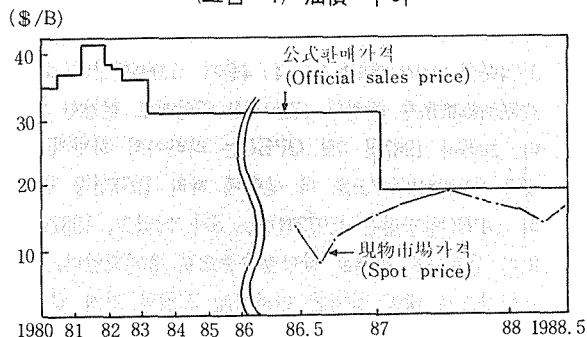
2. 석유산업 현황

1980년 후반 油價인상의 지속에 따른 선진국의 석유수요 감소 및 非OPEC산유국의 산유량증대 등에 기인하여 原油시장에서는 공급초과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리비아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오히려 1980년말 公式유가를 배럴당 4달러 인상하였다.

이에 美國, 西獨, 이탈리아 등 리비아 原油의 주요수입국들이 리비아産 原油수입을 크게 줄임으로써 1981년 리비아의 산유량 및 石油수출량은 전년대비 30%이상 크게 감소하였다.¹⁾ 특히 1980년부터 對美關係가 악화되어 1981년 후반 美, 엑슨社의 리비아 철수, 1982년 3월 美國의 리비아産 原油수입금지 및 石油생산장비 판매 중단조치

註: 1) 1980년 평균 1.8백만 b/d에 달했던 産油量이 1981년 상반기에는 1.5백만 b/d로 줄어들었고, 동년하반기에는 0.8백만 b/d 水準까지 대폭 감소하였음.

〈그림-1〉 油價 추이



註: 1) Brega 40° 油種 기준임.

〈資料〉 IMF Report, Aug. 1987 및 Petroleum Market Intelligence, April 1987 & June 1988에 의거 작성

등으로 美國의 對 리비아 原油수입은 1981년 1/4~2/4분기의 500천b/d에서 4/4분기에는 109천b/d로 격감하였다. 이에 따라 〈그림-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同年中 平均油價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石油수출수입은 전년대비 32.8% 감소하였다.

한편, 1980년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原油市場의 공급과잉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자 OPEC는 1983년초에 OPEC총산유량 쿼터를 17.5백만b/d로 결정하였으며, 이때 리비아에 할당된 산유량은 1.1백만b/d였다. 그러나 石油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OPEC는 1984년 11월 다시 산유량 감축조치를 추가로 단행하였으며, 이어서 1985년 1월 말에는 두번째의 原油(輕質油)가격의 인하조치를 단행하였다.

〈表-1〉 산유량 및 原油수출량 추이

(단위: 백만 b/d, %)

	1976~1980년 평균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산 유 량 (증감율)	1.800~ 2.100 -	1.200 (-33.7)	1.210 (0.8)	1.100 (-9.1)	1.068 (-2.6)	1.001 (-6.5)	1.244 (24.3)
수 출 량 (증감율)	- -	1.065 (-37.3)	1.100 (3.3)	1.060 (-3.6)	0.966 (-8.6)	0.891 (-8.0)	1.030 (15.6)

〈資料〉 IMF Report, Aug. 14, 1987.

그러나 당시 전세계 石油거래량의 1/2이상이 現物市場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石油市場의 침체로 현물시장가격이 공식가격을 훨씬 밑돌았다. 따라서 OPEC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石油시장이 회복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油價인하 및 산유량감축이 지속된 결과 각국의 石油수출수입이 격감하였다. 이에 따라서 OPEC는 1985년 12월에 世界石油市場에서의 자율적인 시장점유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OPEC산유량 쿼터체제는 사실상 붕괴하고 각 산유국은 일시에 산유량을 증대시켰다. 리비아도 산유량을 대폭 증대하여 1986년 1~8월 평균 1.37백만b/d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채 OPEC회원국들의 동시적 산유량증대는 石油市場의 불균형현상을 더욱 심화시켰고 油價는 폭락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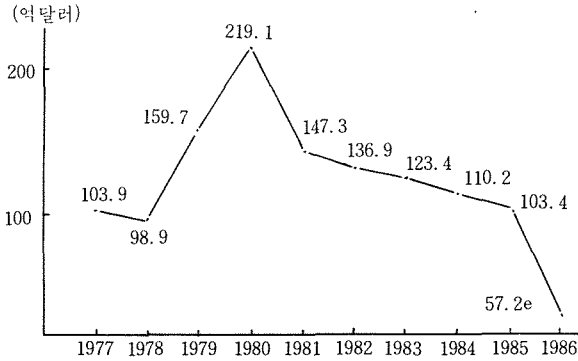
〈表-2〉 산유량 및 原油수출량의 분기별 추이

(단위: 백만 b/d, %)

	1985				1986				1987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산 유 량 (증감율)	0.999 (-10.2)	0.949 (-18.5)	1.004 (-1.4)	1.053 (6.4)	1.244 (24.6)	1.402 (47.7)	1.335 (32.9)	0.996 (-5.5)	0.949 (-23.8)	0.949 (-32.3)
수 출 량 (증감율)	0.899 (-11.7)	0.839 (-21.0)	0.884 (-3.4)	0.943 (6.4)	1.030 (15.9)	1.188 (41.7)	1.121 (26.8)	0.782 (-17.2)	0.844 (-18.0)	0.883 (-25.6)

〈資料〉 〈表-1〉과 같음.

〈그림 - 2〉 石油輸出收入 추이



〈資料〉 IMF Report, Aug. 1987 및 Dec. 1982에 의거 작성

1986년 12월에 OPEC는 1987년의 리비아의 OPEC할당량을 0.998백만b/d(1/4~2/4분기 : 0.948백만b/d, 3/4분기 : 0.996백만b/d, 4/4분기 : 1.098백만b/d), 공식原油販賣價를 배럴당 17.80~18.67달러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87년 6월 OPEC는 리비아의 하반기 할당량을 0.996백만b/d로 더 낮춤에 따라 1987년중 리비아의 OPEC할당량은 0.972백만b/d가 되었고, 1987년 상반기 산유량은 대체로 할당량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이상으로 대략 살펴본 리비아産 石油의 가격 및 산유량, 수출량을 토대로 한 石油수출수입의 추이는 〈그림 - 2〉와 같다.

〈表 - 3〉 經濟成長 추이

(단위 : 백만디나르,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名目 GDP	10,535	9,341	8,846	8,531	7,574	7,203	6,473
名目GDP 성장율	34.3	-11.3	-5.3	-3.6	-11.2	-4.9	-10.1

〈資料〉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86, 1988에 의거 작성

3. 석유산업의 침체가 경제에 미친 영향

(1) 負의 성장지속 및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실적 부진

리비아는 막대한 石油輸出收入을 배경으로 특히 1970년대 후반에 의욕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1980년 한해에만 무려 34.3%에 달하는 GDP성장 실적(경상가격)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

〈表 - 4〉 石油부문 및 非石油부문의 성장율

(단위 : %)

	목표성장율 (1981~85평균)	實 績 値					기간평균
		1981	1982	1983	1984	1985	
石 油 部 門	-5.9	-36.6	7.1	-5.7	-13.4	13.5	-7.0
非 石 油 部 門	10.3	7.9	0.4	0.7	3.5	1.7	2.8
農 · 林 · 漁 業	7.4	13.6	2.5	14.7	-3.9	4.1	6.2
광 造 業	9.0	5.9	11.0	-5.2	-4.8	7.5	-1.5
製 造 業	22.4	11.1	10.1	16.2	8.1	26.4	14.4
電氣 · 가스 · 水道	14.8	8.9	18.7	17.3	-15.1	11.2	14.2
건 설	12.5	0.9	-10.9	-5.7	-4.6	7.0	-2.7
交 通 · 通 信	8.1	14.3	-5.3	-3.1	5.4	-1.1	2.0
都 · 小 賣 業	8.0	8.5	12.7	-20.1	7.9	-6.9	0.4
金 融 · 保 險	10.0	19.0	-19.4	23.0	-6.2	-3.9	2.5
公 共 서 비 스	5.0	9.3	7.5	6.5	10.5	-6.5	5.5
교 육	8.1	7.6	7.1	4.0	7.1	2.6	5.7

〈資料〉 〈表 - 1〉과 같음.

나타났던 高成長趨勢와는 달리 1981년부터는 <表-3>에서 볼 수 있듯이, 負의 성장세가 지속되었는바, 1986년의 경우 GDP는 6,473백만디나르로 1980년대비 38.6%나 감소하였다.

한편 리비아정부는 1970년대중 두차례의 石油波動을 거치는 동안 지속적인 石油수입증대를 바탕으로 1981년~85년간 의욕적인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그 결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2차 개발계획은 계획기간중 非石油부문의 연간 성장목표를 10.3%, 石油부문의 경우 -5.9%로 책정하고, 그의 목표달성을 위

한 기본전략으로서 ① 基礎食料品の 自給自족 ② 公업기반의 확충 ③ 人력자원의 개발 ④ 社會間接資本의 擴充 등을 채택하였으나, 非石油部門의 성장율은 2.8%에 그쳤으며 石油部門의 경우 -7.0%의 성장율을 보임으로써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을 나타냈다.

<表-5>에서 보면, 石油부문의 GDP 구성비는 1981년 51.0%에서 1985년에는 49.3%로 불과 1.7%포인트 낮아졌는데, 그 이유를 非石油부문의 성장에서 찾기보다는 석유부문의 침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表-5> 산업별 GDP구성비

(단위: %)

	1981	1982	1983	1984	1985
石油 부문	51.0	52.6	51.0	46.6	49.3
非石油 부문	49.0	47.4	49.0	53.4	50.7
財貨生産 부문	18.1	16.5	17.3	18.1	18.7
農·林·漁業	2.6	2.5	3.0	3.0	2.9
광업	0.6	0.5	0.5	0.5	0.5
製造業	2.6	2.8	3.3	3.8	4.4
電氣·가스·水道	0.7	0.8	0.9	1.1	1.2
건설	11.6	9.9	9.6	9.7	9.7
서비스 부문	11.5	11.6	10.3	11.6	10.3
交通·通信	5.0	4.6	4.5	5.0	4.6
都·小賣業	6.5	7.0	5.8	6.6	5.7
其他 서비스 부문	19.4	19.3	21.4	23.7	21.7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表-1>과 같음.

(2) 財政收支赤字의 지속

리비아의 財政收入은 약70%가 石油收入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石油시장의 침체로 석유생산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석유회사로부터의 로열티收入 및 조세수입이 격감을 보여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石油收入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非石油收入의 增大라기보다는 石油收入의 감소추세가 급격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세출도 1982~86년중 연평균 11.5%의 감소를 보였는바, 이는 개발지출의 억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1970년대에는 石油收入급증을 바탕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개발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커졌으나, 반면에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개발정책추진 억제 등으로 개발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점차 낮아져 1986년에는 총 세출의 31.7%에 그쳤다. 세입의 감소율이 세출의 감소율을 능가하여 결과적으로 1981년이후 재정수지 적자기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그 적자규모는 1986년 GDP의 24.2%에 달하였다.

〈表-6〉 財政收支 추이

(단위 : 백만디나르)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¹⁾
歲 入	4,334.6	4,067.0	3,448.1	3,090.2	2,899.6	1,994.1	2,343.5
石 油 수 入	3,420.0	3,230.0	2,520.0	2,125.0	1,840.0	1,074.0	1,100.0
非 石 油 수 入	914.6	837.0	928.1	965.2	1,059.6	920.1	1,243.5
歲 出	6,690.4	5,337.9	4,502.9	4,587.5	3,905.4	3,559.5	2,693.5
經 常 支 出	1,350.6	1,461.0	1,567.6	1,645.3	1,182.1	1,332.9	1,243.5
開 發 支 出	2,872.8	2,365.9	2,096.3	1,812.2	1,523.3	1,126.6	1,450.0
追 加 豫 算 支 出	2,467.0	1,511.0	839.0	1,130.0	1,200.0	1,100.0	.
적 자 또는 흑 자	-2,355.8	-1,270.9	-1,054.8	-1,497.3	-1,005.8	-1,565.4	.
(재정수지/GDP)	(-25.2)	(-14.4)	(-12.4)	(-19.8)	(-14.0)	(-24.2)	

註 : 1) 推定值임.

〈資料〉 IMF Report, Aug 14, 1987

(3) 국제수지에 미친 영향

1981년도에 리비아의 국제수지는 石油輸出收入의 격감으로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였는데, 1980년 88억달러의 흑자를 보인 경상수지가 1981년 무려 39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 이는 石油輸出收入이 총 수출수입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石油 이외의 외화수입원이 없음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적자로의 反轉에 대처하여 리비아정부는 1982년부터 수입억제책과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였고, 1984년부터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송금지출을 줄이고자 해외노동력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역수지 흑자폭이 늘어나고 무역외 및 이전수지가 개선됨으로써 리비아는 국제수지 적자폭을 줄여나갈 수 있었다.

〈表-7〉 國際收支 추이

(단위 : 백만달러)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經 常 收 支	8,793.4	-3,887.5	-1,481.8	-1,484.2	-1,443.7	2,124.3	-13.0
貿 易 收 支	11,369.0	167.5	2,725.2	3,369.7	2,564.1	4,648.5	1,250.0
수 出	21,919.2	14,730.9	13,701.0	12,348.2	11,027.8	10,053.3	5,690.4
수 入	10,550.2	14,563.4	10,975.8	8,978.5	8,463.8	5,704.8	4,440.4
貿易外 및 移轉收支 ¹⁾	-2,575.6	-4,055.0	-4,207.0	-4,853.9	-4,007.8	-2,524.2	-1,263.0
수 入	1,446.3	1,789.9	1,031.2	837.4	652.6	535.4	492.7
(投資 收入)	-	(1,626.7)	(867.8)	(676.2)	(482.3)	(418.8)	(397.4)
지 出	4,021.9	5,844.9	5,238.3	5,691.3	4,660.4	3,059.6	1,755.8
(本國送金支出)	(480.7)	(1,530.8)	(1,574.7)	(2,031.7)	(1,240.3)	(766.8)	(448.2)
資 本 收 支	-1,077.5	-497.5	-587.7	-292.9	223.3	-101.3	-99.2
(石 油 部 門)	(-1,217.0)	(-597.9)	(-264.5)	(-226.3)	(-46.3)	(30.7)	(-80.7)
(公的移轉收支)	(-144.2)	(-677.2)	(-323.3)	(-66.5)	(116.5)	(-132.1)	(-99.5)
오 차 와 누 락	-336.1	-748.9	-210.4	-120.6	-486.1	579.0	104.0
綜 合 收 支	7,379.8	-5,133.9	-2,280.0	-1,897.6	-1,706.5	2,601.9	-8.3
대 외 지 급 준 비 액	13,091	9,003	7,059	5,219	3,634	5,904	5,953

註 : 1) 移轉收支에는 민간이전수지만이 포함되었고, 公的移轉收支는 자본수지에 계상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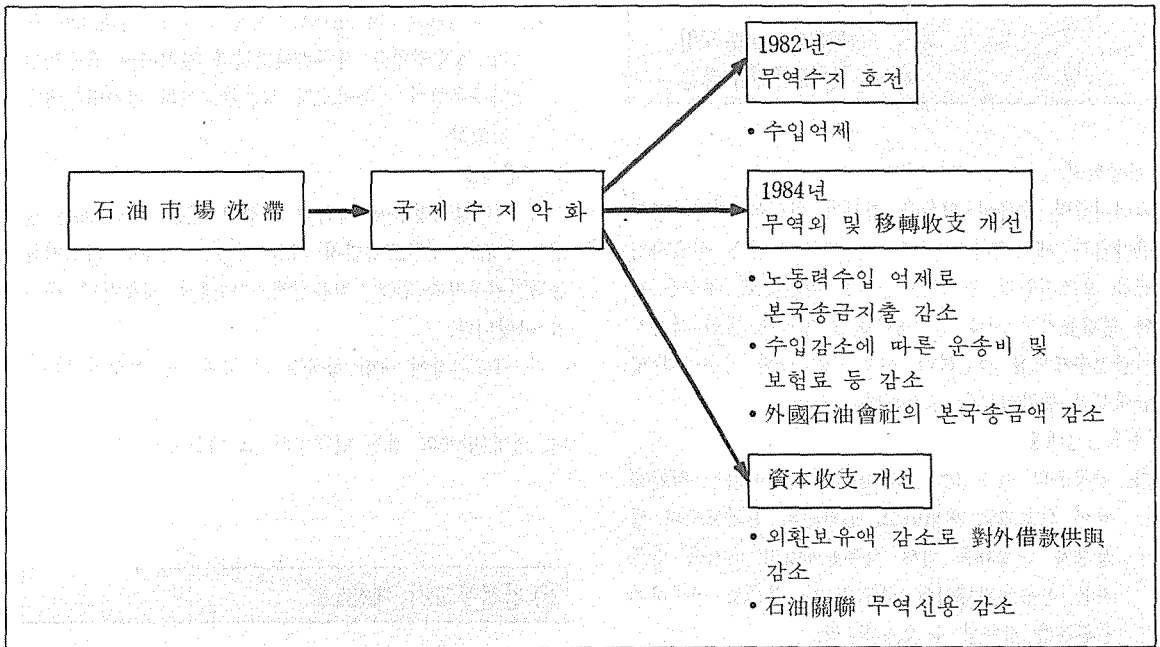
〈資料〉 IMF Report, Aug. 1987 & Dec. 1982 및 IFS, April 1988에 의거 작성

1985년 들어서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반전되어 21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石油수출수입 및 투자수입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규모가 전년대비 32.6% 감소되어 무역수지흑자는 2배 가까이 확대되었고, 뿐만 아니라 수입의 대폭 감소에 따른 운송비 및 보험료의 감소, 外國石油會社의 본국송금액 감소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감축에 따른 본국송금지출의 감소 등으로 貿易外 및 이전지출이 크게 줄어들어 同 수지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86년 중에는 세계적인 油價폭락으로 石油輸出收入이 절반으로 줄어 무역수지흑자폭이 전년대비 73.1% 감소되었지만, 전년도와 같이 石油市場의 침체에 따라 무역외 및 이전 지출이 절반 이상 감소됨으로써 무역외 및 이전수지 적자폭이 54.1% 축소되어 경상수지는 거의 균형수준으로 접근되었다.

한편, 1981년 이후의 자본수지를 살펴보면 민간부문에



의한 외채도입의 대폭증가에 힘입어 자본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였던 1984년도를 제외하고는 흑자기조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赤字幅은 石油關聯 무역신용이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하여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국제수지적자에 따른 外換保有額 감소로 對外借款供與規模가 축소됨에 따라 公的移轉收支는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수지는 경상수지와 같이 1981년 이후 계속 개선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4.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계속된 石

油市場의 불황에 따라 리비아經濟는 성장, 국제수지, 재정 등 경제 전부문에 걸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왔다. 이에 대응하여 리비아政府는 1982년 이후 수입억제, 각종 지출억제 등 긴축정책을 취함으로써 石油市場 침체에 따른 영향을 극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한편, 최근 石油전문가들에 의하면, 향후 油價는 石油 공급초과 현상이 완화됨과 더불어 1992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망대로 油價가 회복되고, 현재 리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조정이 순조로이 진행될 경우, 앞으로 리비아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국수출입은행, 주간해외투자정보>